

<핀란드 국민방문> 헬싱키 시 주최 오찬 답사

2006년 9월 8일

존경하는 타르야 할로넨 대통령 각하 내외분,

힐투넨 헬싱키 시의회 의장,

유시 파유넨 시장, 그리고 귀빈 여러분,

따뜻한 환대와 오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곳에 도착했지만 숲과 호수와 공원에 둘러싸인 도시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유럽 문화의 도시'로 선정될 만큼 문화시설과 공연도 풍부하다고 들었습니다. 쾌적하고 품위있는 삶의 환경이 도시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헬싱키는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냉전이 고조되던 1952년에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화합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했고, 1975년 '헬싱키 선언'은 유럽이 동서 간의 대립을 넘어 평화와 안정의 길로 나아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를 뒤, 이곳에서 개막하는 ASEM 정상회의도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 두 대륙 간의 파트너십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귀빈 여러분,

방금 전 한국상품전시회를 둘러보면서 한국에 대한 헬싱키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1939년에 람스테트 교수가 외국인으로는 처음 한국어 문법책을 저술해 세계에 소개했고, 헬싱키 대학에서는 1980년부터 한국어 강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핀란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핀란드를 배우기 위해 공무원과 기업인, 언론인 등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고, 공동으로 MBA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교류가 실질협력을 확대하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귀빈 여러분,

헬싱키시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